

로동이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게

2014년 11월 어느한 종합식료가공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이룩한 현대화사업을 두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공장의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으며 환해졌다고, 우리가 걷는 걸음이 헛되지 않고있다고 거듭 평가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설레임을 금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까지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어찌하여 그렇듯 만족해하시는지 그 사연을 미처 다 알수 없었다.

그날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현대화된 공장을 기쁨속에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제는 로동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깨달을수가 있었다.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던것이다.

로동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비록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 노동계급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같은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인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생산공정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공장일군들은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종업원들에게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금 새겨안았다.